



## -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 일본 아이치현 현장방문 결과보고

### I 개 요

- 기간: 2015. 3. 18.(수) ~ 3. 20.(금) / 2박3일
- 장소: 일본 아이치현 (주)리버이브, 나고야항, 키누우라항
- 참석: 3명(위원 2, 관계공무원 1)
  - 특위위원(2) : 박재만 위원장, 최인정 위원
  - 관계공무원(1) : 오세훈 특별전문위원
- 내 용
  - (주)세아베스틸 고철 수출 과정 확인
  - 방사능 검사 및 고철 유입 경로 확인
  - 일본내 고철 시장 상황 파악 등

### II 현장 세부활동 (방문기관별)

- (주)리버이브
  - 문진웅 회장과과의 간담회 실시
  - 고철, 산업폐기물 등 재활용 처리 과정 견학 및 질의응답
- 나고야항과 아이치해운(주)
  - 고철 수집 과정 파악
  - 이동식 검사기 활용 야적된 고철에 대한 방사능 측정 확인
  - 고철 공인 인증서 발행 과정 확인

### ○ 키누우라항

- 방사능 측정 과정 확인
- 이동식 검사기 활용 야적된 고철에 대한 방사능 측정 확인
- 고철 야적장 및 항만 시설 라운딩 등

## Ⅲ 주요 질의 요지

의원명	질의 요지
박재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본산 고철 수출 사유</li><li>◦ 방사능 검사 및 고철 유입 경로</li></ul>
최인정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후쿠시마 주변의 고철 유입 상황</li><li>◦ 수출 전 방사선 검사 체계</li></ul>

## Ⅳ 자료 요구 (2건)

의원명	자료 요구 내용	비고
최인정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본 수출업체의 나고야항 및 키누우라항에 설치된 고정식 방사능 감시기기와 이동식 방사능 감시 장비에 대한 시험 성적서</li><li>◦ (주)세아베스틸로 수출한 고철 공인 성적서</li></ul>	(주)세아베스틸 수입상사

## Ⅴ 세부 질의답변 내용

### (주)리버이브

#### <박재만 위원장>

#### ○ 일본 고철 수출 사유

- ▶ 일본의 인건비, 전기료 등의 재활용 처리 단가가 높아 나고야 내에 신일본 제철이 있음에도 재활용하지 않고 고철로 수출하고 있음

### <최인정 위원>

○ 후쿠시마 주변의 고철 유입 상황

- ▶ 나고야는 공장지대로 자체에서 생산되는 고철이 많아 후쿠시마 주변에서 유입된 고철은 없음

### 나고야항, 키누우라항

### <박재만 위원장>

○ 수출 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언제 부터 하고 있는지?

- ▶ 수출 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20~30년 전부터 자체 검사 실시

○ 수출 고철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지?

- ▶ 일본 정부에서는 직접 방사능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서 인증 받은 제3의 검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방사능 검사 공인 인증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리 업체에서 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외부에서 고철 유입시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야적한 고철을 수출하기 위하여 트럭에 계근시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제3의 검사기관에서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하여 총 3회에 걸쳐 방사능 검사를 진행 수출을 하고 있음

### <최인정 위원>

○ 수출 전 일본의 방사능 검사 실시는?

- ▶ 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외부에서 고철 유입시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야적한 고철을 수출하기 위하여 트럭에 계근시 2차 검사를 실시하고, 3차로 일본 정부에서 인증 받은 제3의 검사

기관에서 방사능 검사 공인 인증서 발행시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수출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수출하고 있음

○ 방사능 감시기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지?

▶ 6개월에 1번씩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방사능 감시기기 정기 검사결과 요구.

▶ 자료는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추후 자료 제출하겠음.

## VI 종합의견

### (주)리버이브

○ 일본에서의 고철 수출 사유

- 일본은 산업화 완성기로 기존에 설치된 철골의 수명이 다하여 철거중인 사례가 많고,
- 일본의 인건비, 전기료 등의 재활용 처리 단가가 높아 나고야 내에 신일본 제철이 있음에도 재활용하지 않고 고철로 수출하고 있음

○ 후쿠시마 사고 원전 주변의 고철 유입 상황

- 나고야는 공장지대로 자체에서 생산되는 고철이 많아 후쿠시마 주변에서 유입된 고철은 없다는 것이 현지 고철업자와 수집업자의 주장임

○ 일본에서의 폐기물 처리

- 폐기물 협회에서 자체 매뉴얼을 작성 매뉴얼대로 처리하고 있고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 보존을 위하여

- 40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 태양광의 활용을 위하여 8천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회사 내 태양광 발전 및 자연의 빛을 활용 건물 내에서 자연광을 이용하여 전등 및 식물을 재배하고
- 폐음식물 쓰레기를 거름으로 활용하여 논농사를 지어 재배된 쌀로 청주를 생산하여 재활용된 병에 유입 생산 판매하고 있음
- 또한, 회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 수입된 한국의 쓰레기 분리용 기계 4대 중 1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음.

## 나고야항, 키누우라항

### ○ 수출 전 방사능 검사 연혁

- 일본 수출업체 직원은 수출 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20~30년부터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이는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수입국에서 방사능 검사를 요구하여 그때부터 실시 한 것으로 판단됨.

### ○ 방사능 검출 여부

- 현지 업체에서는 고정식 방사능 검출기 1대와 이동식 방사능 검출기 1대를 활용하여 방사능 검출을 검사하고 있었으며,
- 이동식 방사능 검출기를 활용하여 야적된 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고,

- 해당업체에서도 지난 20여 년간 방사능이 검출되어 수출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함.

#### ○ 수출 전 방사능 검출

- 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외부에서 고철 유입시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야적한 고철을 수출하기 위하여 트럭에 계근시 2차 검사를 실시하고, 3차로 일본 정부에서 인증 받은 제3의 검사 기관에서 방사능 검사 공인 인증서 발행시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하여 총 3회에 걸쳐 수출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수출하고 있었음.

#### ○ 후쿠시마 주변의 고철 유입 여부

- 나고야는 공업지대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고철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상태로 후쿠시마 근처에서 고철이 유입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 나고야항과 키누우라항 고철의 차이

- 양쪽 항 모두 3차에 걸쳐 방사선 검사 후 수출하는 것은 같으나, 나고야항에서는 폐기물 업체에서 수집한 고철을 주로 수출하고 있었으며, 키누우라항에서는 수집된 고철은 없고 공장에서 쓰고 남은 철 스크랩을 수출하고 있었음.

#### ○ 고철 수출업체의 반응

- 언론 보도 이후 한국의 까다로운 방사능 검사요구로 수출업체에서는 방사능 검사로 인한 단가를 줄이기 위하여 한국으로의 수출량을 줄이고 제3국으로의 수출을 고려하고 있음.

## ○ 아쉬운 점

- 일본에서는 고철 수출 전 3차에 걸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수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세관 및 항만청과 같이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수출하지 않고 인증 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하여 수출하도록 하고 있었음

## VII 현장 사진 자료



(주)리버이브 문진웅 회장과의 간담회



(주)리버이브 고철 처리 과정 견학



아이치해운(주) 방문



나고야항 고철 야적장



휴대용 검사기로 방사능 측정



키누우라항 고철 야적장